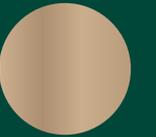


2020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센터

작가&평론가 공동워크숍 자료집 #1



2020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센터

작가&평론가 공동워크숍 자료집 #1



제스처, 움직임, 말, 이미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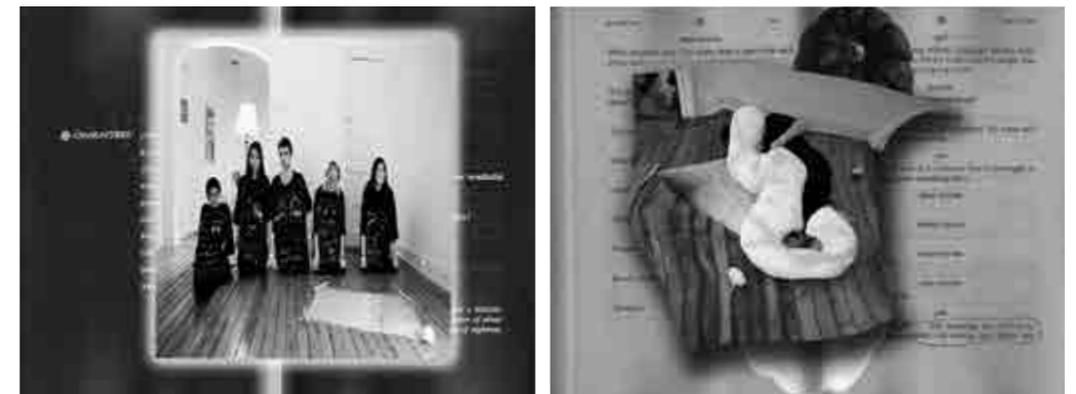
안소연 미술비평가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없는 정체성과 그것에 잠재된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광지수의 작업은,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화를 겪으며 나름의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짧은 시기에서, 그가 느꼈을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 컸을지도 모르고 작업의 연속성보다는 반복되는 중단과 단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스스로 더 솔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연된 일련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미처 다 건져 올리지 못한 잔해들을 매개하여 유보해 두었던 “무엇”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은 현재가 된 과거에 대한 미래의 시간이 지닌 또 다른 가능성일 테다.

광지수의 최근 진행 중인 작업은, 자신의 경험에서 취합한 임의의 조형적 함의를 드로잉을 통해 풀어내고 이를 조각 - 오브제나 설치의 맥락으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대개 이루어진다. 그는 주로 “문화적 차이와 말의 한계로 인해 설명되지 못했던 개인의 서사를 시각 언어로 가시화”한다. 이를테면, 그가 작가노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의 사물과 그들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가상의 공동체나 만남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자/외부자의 경계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소속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사물과 그들에 대한 서술”을 수집하고 재구성하는 일을 통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시각 언어의 가능성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어떤 경계의 정립과 분할에 대하여 질문을 내놓는 듯하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새롭게) 잇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커플>(2018)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을 듯한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한 <무제>(2018)나 <화분들>(2018)을 같이 놓고 봐도 된다. <커플>은 재료 - 석고, 와이어, 구슬, 깃털, 머리끈, 컬러 인쇄물, 파스텔, 폼 스프레이, 모조 원석-의 물성과 그것을 “커플”이라는 단어로 서로 매개하여 추상적으로 다루는 감각에 대해 환기시키는 설치 작업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길에서 피상적으로 경험한 하나의 사건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커플에 대한 짧은 인상을 조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당시, 광지수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점점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어떤 찰나에 드러내는 장면에 흥미를 느껴, 이를 조형적으로 변환해 작업에 가져올 만한 것이 있을지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그 속사정이야 어떻게 간에 표면-몸짓, 움직임, 표정 등에 드러난 현상으로서의 “장면”을 포착해, 그것을 사물을 비롯한 몇몇 재료를 이용하여 일체 감각적인 물성만을 다루려는 조형적 실험과 서로 이접시켜 놓을 만한(미학적이면서 무대적인) 가능성을 살핀 것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풍경>(2016), <기도 벤치>(2017), <안전제일>(2017), <유보>(2017) 등의 작업에서 누군가의 행위와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역사와 누군가의 삶을 향한 시선과 그 시선 사이에 놓인 거리감에 대한 미세한 조율이 느껴진다. 유독 그는 이때 당시 특정 집단 내에서 깊은 상징과 서사의 함의가 깃들여 있는 행위나 사건에 주목해, 그것에 몰입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반복적



퍼포먼스, Erin Jane Nelson의 Kantan An Libe Tavleau, 2013

인 제스처나 움직임이나 형태와 같은 조형적 특성을 끌어내 그것이 가진 또 다른 잠재적 힘과 또 다른 감각과의 연대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도 벤치>의 경우 기도하는 몸짓과 그 운동성이 기계의 작동 원리로 재구축돼 단지 삼각형의 영역 안에서 하얀 공의 무게 중심을 조율하는 물리적 힘으로 전환된다.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몸,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힘에 대한 추상적 사유로 나아갈 가능성을 여기서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로 된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와 그것을 기호화하는 형식-글자 모양, 색, 텍스트 방향 등을 그대로 차용한 <안전제일>에서, 광지수는 그 언어를 수직으로 회전시키는 가시적인 개입을 통해 언어의 기능을 상쇄시키고 병풍같이 “가만히 서 있는” 구조물로 보이도록 해 이 “왜곡된 형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서술의 범주를 계속해서 이동시킨다. 광지수는 디지털 자수로 제작한 <풍경>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보여줬다.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일간지에서 발행한 신문 기사를 이용해, 그는 한자어나 옛 문자 표기법에 따른 문자로 정확한 읽기와 이해가 불가능한 기사문을 삭제함으로써 서사가 빠져나간 사진과 숫자와 편집 선들만 남겨 디지털 자수로 제작했다. 이처럼, 이때의 작업은 사회나 역사 안에서 특정한 상징과 서사를 함의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해 그것에서 서사를 제외하거나 재구성하는 일련의 시도를 통해 그가 말한 시각 언어의 가시화 및 새로운 가상의 만남과 접촉을 모색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커플>, <무제>, <화분들>은 기존의 관심에서 더욱 미학적인 시도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



2019 In-Between States 전시 풍경



2018 Alienable Rights 전시 풍경

여준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실의 경험에서 의도적으로 낱말의 사건과 서사와 심지어 시시콜콜한 사연들까지 외면하거나 삭제하거나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단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감각을 조형의 언어로 시각화하는, 미학적 실천의 면면을 보여준 셈이다. 그는 가끔 나와의 인터뷰 도중에 “미화시킨다”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는데,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없는 현실의 슬한 서사를 가로질러 그 서사를 감싸고 있는 제스처, 움직임, 언어, 이미지,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서 더 큰 사유를 포괄해내는 미학적 순간들을 발견해내 고자 했던 것 같다.

<인사하는 15가지 방법>(2018)이나 <I've Been Around(For a While)>(2018 -)의 경우, 그러한 맥락이 더 강조된 미학적 함축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타인과의 접촉의 제스처가 남긴 흔적, 어떤 일상의 시나리오를 딛고 카메라 앞에 붙들어 놓고자 했던 존재들, 단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흔적과 존재의 표상/이미지뿐인데, 광지수는 그것을 하나의 세라믹으로 하나는 그림으로 옮겨 서사 없는 불확실한 형태들이 “예술적 형태”로서 임무를 다할 어떤 방식들을 취했던 셈이다. 이때 그는 이러한 예술적 형태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감성의 공동체를 상상했던 모양이다. (이러한 시각은 지난 수년 간 예술 현장에서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를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되었던 미학적 사유에 대해 충분히 떠올리게 한다.)

최근에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작업들은 그 연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입체적인 조각-오브제 작업과 그것에 대한 설치에 앞서 그는 드로잉을 통해 조형적이고 추상적



2017 <안전제일> 작업 과정



2017 <기도벤치> 작업 영상

인 감각을 한껏 구체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 년 전에 비해 거대 담론이나 크고 보편적인 사회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슈를 관찰하던 시점에서 자신의 주변으로 미시적 거리 안에 시선을 옮겨 놓은 콕지수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추상적인 사유를 이끌어낼 만한 조형성을 발견하고 관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주관적인 감각과 추상적인 사유의 연대를 이끌어내기에,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함의가 부추기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지각을 미학적 감각으로 변환해 어떤 흐릿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무대”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이트큐브의 질서를 초과하는 더 큰 가상적 힘을 전제로 장소로 상정될 것이다. 그가 집중하고 있는 드로잉과 조각 - 오브제의(단조로운) 물성을 확장시킬 무대를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2019 A Perfect Measurement 전시 풍경



기도 벤치
2017



인사하는 15가지 방법
2018



유보
2017



I've Been Around (For a While)
2018 -